

〈대 담〉

심당 송상현 교수 정년기념대담

일 시 : 2006. 12. 28.(목) 14:00~18:00

장 소 : 이사협회(교보빌딩 14층)

대담자 : 호문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 장)

김건식(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 수)

정상조(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 수)

조홍식(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호문혁 : 선생님께서 내년 2월에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그 감회가 어떠하십니까?

송상현 : 글썄요, 감회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별 감회는 없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나 행복을 드렸는지는 의문이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제 정년을 맞이했다는 측면에서는 후회가 없고 만족한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의 생활을 아내와 상의를 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게 앞으로 수년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

판관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있을 뿐 감회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상하고 그에 대해 말을 하여야 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하는 운명이어서 그런지 감회를 생각할 여지가 적은 것 같네요.

호문혁 : ICC 임기를 마치실 때가 정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동 : 웃음.

송상현 : 그럴 것 같습니다.

김건식 : 저희는 사실 교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만 교수님께 사적인 내용을 여쭙어 보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는 여러 모로 운도 좋으시지만 특히 결혼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일동 : 웃음). 부부 관계나 부모·자식 관계가 모두 선생님께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현 :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여야 하나? 글썄요.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대답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뉴욕에서 만났어요. 나는 학교공부를 마치고 학위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뉴욕 월 스트리트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는데 60년대에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가 단신으로 유학을 온다는 게 요즘은 얘기가 조금은 틀리지만, 그 당시에는 흔한 경우는 아니었죠. 코네티컷 칼리지에 학사 편입을 해서 3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욕에 아내의 막내 이모님이 사시고, 이모부가 의사셨는데 어떻게 그 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었고요.

김건식 : 만나신 것이 어떤 분들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셨나요?

송상현 : 나는 계획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버릇 중의

하나는 누구를 만나도 상대가 말하면 귀담아 듣기는 해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족사나 출신학교 등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점에 대해 안 물어보고 나도 안 물어보았으나 중간에 그 사람의 이모님이 계시니까 집안의 배경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쪽 부모님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만나뵙기도 했구요.

김건식 : 지금 말씀은 다 편집됩니다.

일동 : 웃음.

송상현 : 그래요. 실감도 안 나지요. 데이트를 자주 할 수도 없었지만 어찌 어찌 약혼은 했어요. 뉴욕에 있는 아리랑이라는 한국음식점에서 간단히 모여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권과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어서 부모님들도 오실 수가 없었어요. 내 쪽에서는 코넬대학에서 같이 다니던 한국인 동료학생 몇 명이 참석했고 아내 쪽은 그 이모님 내외분과 몇 명의 친척들이 와 주셨지요. 부모님은 승낙하셨지만 못 오시니까 어쩔 수 없었고, 결혼식은 귀국 후에 서울에서 했죠. 뭘 또 알고 싶은데요?

김건식 : 그런 말씀도 좋은데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특별히 배우신거라든지 받으신 교훈이라든지 또 어려서 선생님의 인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 : 독립지사이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항상 뭐랄까 엄격한 분위기에서 늘 긴장하고, 근검절약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분위기이었어요. 상상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말씀도 자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내가 감옥에 가거나 잡혀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 요령 같은 것을 너댓살 먹은 아이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마 정식으로 가르치셨다기보다 눈치로 다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체포되어 끌려갈 경우에도 가능하면 한 여름이라도 얇은 옷을 두겹게 여러 겹 입어야 한다든지, 종이와 연필 등을 지참하라든지, 손톱, 발톱, 머리 등을 될 수 있는 데로 짧게 자르고 가라든지 하는

등등의 행동 수칙을 터득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안락함, 릴렉스(relax), 행복, 느긋한 웃음꽃을 피우면서 한가롭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훨씬 나중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세살 때부터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천자문으로 시작했지만 상당한 경지까지 배웠는데, 암기숙제를 못하면 종아리를 맞고, 잘 할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상(책걸이 떡)을 주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일찍부터 한문을 상당히 공부하였지만 숙제를 못해서 종아리 맞은 기억은 없군요. 그 당시에는 한 집에 여러 형제가 같이 자랄 때였지만 내가 무녀독남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호강을 하며 자랐을까?”라고 짐작하시지만, 그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건식 :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쭙보지 않을 수 없는데, 선생님을 곁에서 보면 엄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자식들에게도 엄하게 교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 말씀으로는 자제분들을 아주 민주적·자유적으로 키우셨다고 하시는데요?

송상현 : 민주적·자유적이라기보다는 나는 아이들을 이성적, 규범적으로 대하는 편으로서 중요할 때에 한마디 하는 편이지만, 아내는 감성적으로 스킨십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부모자식간의 정을 듬뿍 주려고 항상 노력하지요.

김건식 : 사모님 말씀으로는 싫은 소리 한 마디도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송상현 : 안 하죠. 어떤 경우가 됐을 때 “그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도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다행히 아이들도 별로 큰소리가 필요없을 만큼 잘 성장했으니 고맙지요.

정상조 : 선생님께서 퇴임하시면 저희가 배운 선생님들은 모두 퇴임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지난 20~30년 오랜 세월 가까이 뵈었지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스승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는데요, 선생님의 가장 인상 깊으셨던 스승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건식 :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송상현 : 그 부분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선 내가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나한테 정을 주신 김숙자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저는 학교 가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집안에 큰 인물이 계시면 돌아가신 후에도 그런 분을 받든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다른 것에 고르게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중병을 앓으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할아버님이 암살당하신 후 나라에 떨어진 집안의 분위기를 힘써 추스르시느라고 무한히 애쓰셨거든요. 내가 어려서 자란 가정환경은 모든 식구가 엄청난 충격을 극복하고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대외적으로는 할아버님의 후예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안에서보다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푸근한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는 골고루 수준급 이상 실력과 덕목을 갖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행운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모시고 싶었던 분들은 생각이 안나네요. 대학의 내 은사들은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오셨기 때문에, 해방되면서 일본인이 남겨놓고 간 학계의 공백을 잘 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학문적 차세대와의 가교를 놓아줌으로써 그 분들의 세대(generation)적 역할을 다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 당시 독어, 일어, 한문 모든 분야에서 능통하셨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영어나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학문적 기초가 우리보다 더 탄탄하시고 더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히 거명을 할 필요도 없이 특히 서울 법대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분들한테 배운 나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김건식 : 초·중·고등·대학교 다니시면서 선생님께 영향을 미쳤던 선배,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송상현 : 우리 집안은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지, 후배, 가족들하고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내가 형제도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외국 대학의 이름을 하나도 몰랐는데 누구한테 상담하고 물어볼 분이 없어서 심지어 옛날에 할아버님을 따르던 노인들에게 여쭙어 본 일도 있어요. 법대의 교수님들도 구미유학에 관하여 그 당시에는 잘 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별로 안계셨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선생님들한테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나 봐요. 내가 재학시절에 고시 양과를 합격했는데도 선생님들은 나를 잘 모르시고 당시에 명단을 가져 왔는데도 “애가 누구야?”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김건식 :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닌데요?

송상현 : 절에는 잠깐 놀러 갔지, 공부하러 간 건 아니죠(일동 : 웃음). 공부는 주로 김유후 변호사와 같이 했어요.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내가 삼선교 근방에 살 때인데 새벽 세시 반쯤 어머니가 연탄불을 열고 밥을 덥혀서 먹이고 도시락 2개를 싸주시면 4시에 통행금지해제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운동도 할 겸 일부러 걸어서 동숭동에 있던 서울 법대에 도착하면 새벽 4시 30분 정도 되요. 당시 김유후 변호사도 장충체육관 부근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 걸어왔지요. 한 1주일 이상 매일 학생 하나가 교문을 두드리니까 수위아저씨(함경도에서 피난 온 권영감)가 잠을 못자게 한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야단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열쇠꾸러미를 통째로 주시면서 “네가 열고 들어가라”해서 매일 아침 서울법대 교문은 항상 내 손으로 열었어요. 내가 도착해서 도서관의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약 10분 후에 김유후 변호사가 도착을 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5시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책을 보다가 9시 첫 시간의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조용한 새벽시간에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르더군요. 강의도 꼬박 꼬박 잘 들었어요. 반면에 당시 교내에 쓰러져 가는 창고 비슷한 건물을 개조해서 그 속에 사는 시골 출신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8시 넘어서야 도서관에 나타나곤 했지요. 그런데 당시 소문이 고등고시 행정과가 금년(1962년)이 마지막이고 없어진다고 해서 행정과에 먼저 응시해서 합격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사법과를 치러서 졸업 전에 사법과에도 합격을 했죠.

호문혁 :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 것은 스님들처럼 생활을 하신 것인데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송상현 : 저녁에는 10시 반 정도에 잤지요.

정상조 : 대학 다닐 때부터 일찍 일어 나셨네요.

송상현 : 내가 요즘 말로 하면 「아침형 인간」이었지요. 일찍부터 하루의 시간을 몇 배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나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애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지요.

정상조 : 아침형 인간은 유전이 안 되나 봅니다.

일동 : 웃음.

송상현 : 지금도 ICC에서 일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하지요. 먼저 기록을 보고 하루의 일처리를 미리 계획하여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지요.

호문혁 : 선생님께서는 법학교수로서 또 법조인으로써 대단히 성공을 하신 분이신데, 법학과에는 어떠한 동기로 입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상현 : 요즘 학생들은 미리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집안이 부자라면 국어학이나 국사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 후일 장인이 되신 어른에게 세배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장인이 교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스승이 한 분은 꼭 있어야 하니 장인에게 세배를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배를 가서 “제가 무얼 전공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분이 “법과에 갈 생각이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분이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이시고 또 그 전에 번역하신 에드워드 버크의 정치학 책도 읽었으므로 별 생각 없이 “왜 정치학자가 법과를 권유하십니까?” 했더니 “나도 법과를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까지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분이 동경대 법문학부(법과)를 졸업하셨는데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하여 관으로 진출하는 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법학교수들을 모두 다 아시고 또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과를 전공하는 걸 고려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순수하게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실용학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용도가 많은 법학이 제일 좋으니 정한 것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고3 때인가 또 세배를 갔는데 “진로를 정했

느냐?” 물어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법대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서 바다에 관한 법을 해라. 바다에 관한 법이 사법적(private law) 측면은 해상법으로 나타나고 공법적인 측면은 해양국제법(law of the sea)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그쪽으로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는 학자가 없더라” 하셨어요. 또 일본의 법학자 다나카 고오타로(田中耕太郎)를 예로 드시며 “사실 법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공사법으로 나누지를 말고 모두 수렴하여 큰 체계를 세워보아라. 그러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됐지만, 근사하게 들려서 그렇게 정하게 됐지요.

김건식 :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문예반 활동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송상현 : 네. 시도 몇 편 썼습니다. 입상도 좀 하고요.

김건식 : 지금은 그런 문학적 관심은 완전히 끊어지신 겁니까?

송상현 : 제가 문학적으로도 그런 재능이 있었고, 데생이나 워터컬러까지는 한 때 인정을 받았었는데, 계속 못했군요.

김건식 : 제가 선생님께서 독일에 다녀오신 후 「신동아」엔가 기행 수필을 쓰신 것을 봤는데 굉장히 문학적 정취가 짙게 풍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송상현 : 75년 8월인가 76년 언젠가 「신동아」입니다. 독일에서 체류한 1년 생활을 쓴 것인데, 특히 독일의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와 개성의 각종 돼지고기 요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글을 쓴 부분은 칭찬을 들었어요. 요리도 잘 하느냐고요. 그 당시 주한독일대사가 독일에 대한 좋은 체류기라고 평하면서 독일어로 전문 번역을 해서 독일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김건식 : 그 이후로는 그런 문학적인 정취를 풍기는 글은 없으셨지요?

송상현 : 몇 경우에 노력은 했지만 내세울 게 없죠.

호문혁 : 법대 다니시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과목이 어떤 것이었나요?

조흥식 : 그와 아울러 「법학」지의 독자층인 학생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법과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법대 생활하실 때 어떠한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어땠나요?

송상현 : 그 당시는 아주 가난하고 암울하여 요즘 사정과 많이 다르니 다 얘기할 수가 없군요. 우선 지금은 한 과목을 1주일에 3시간 가르치고 한 학기로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1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고 일 년을 강의했습니다. 예컨대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민법총칙이 모든 법의 기본이니까 열심히 잘해야 기초가 단단해진다”라고 강조해서 저는 민법총칙 강의에 관심이 많았지요. 당시 친족·상속법만 정광현 교수님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시고 민법총칙은 동경제대 출신의 천재이신 고병국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기대가 많았는데 민법총칙을 1학기에 첫 시간 강의를 하고 1학기 내 휴강. 2학기에도 첫 시간 강의 후 내내 휴강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강의를 중요시하지도 않았고 선생님들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하니 다들 휴강을 아주 좋다고 했죠(일동 : 웃음). 따라서 명륜동 극장에 조조할인으로 영화 보러 가고, 당구 치러 몰려가고, 학교 앞 대학다방이나 학림다방에서 그냥 놀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모두 가난한 시절이므로 돈이 없어서 누가 시계를 전당잡히면 공락춘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 잡힐 시계도 없으면 학생증을 맡기고 시켜먹었지요. 공락춘의 주인은 학생들로부터 맡은 시계와 학생증을 커다란 박스로 가득하게 30년을 보관하다가 이를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도 계속 휴강을 하고, 휴강을 하는 것이 강의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죠. 소송법은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은 돌아가신 유병진 부장판사님이 잠시 가르쳤다가 김용진 단국대교수님이 하셨다가 나중에는 방순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아주 어려웠죠. 그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 강의를 안 되고 엉망이었습니다.

조흥식 :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라든지 학회활동 하신 것이 없으신가요?

송상현 : 대학 1학년은 자유당 때에 보냈고 휴강을 하면 좋기만 했지요. 2학년 때는 철이 들라고 하니깐 4.19가 났어요. 학교는 엉망이었고. 날마다 데모 할 때 따라 다니곤 했지요. 3학년 때는 또 5.16이 발발하여 학교가 폐쇄되고 보니 솔직히 나는 학교생활에 정을 못 느꼈죠. 그리고 그때는 출석을 각자 도장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날인하는 시대였는데 한 명이 여러 개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고 가고, 대리출석이 성행했던 시기였어요. 질서와 관리는 없고 이건 대학생활이 아니다 싶어 학교를 안 가고는 급기야 나는 딴 사업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사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한 번만 지어보면 도사가 되고 인간이 세상사는 법을 알며 사람의 묘한 심성을 터득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일생 지금까지 집을 3채나 지었어요. 공사 현장 감독을 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는 운수사업을 했어요. 자유당 말기에 합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고물차를 개조해서 밤늦게는 정원이 9명인데 15명을 태우고 다녔지요. 5대까지 운영을 했어요.

김건식 : 계속하셨으면 운수업으로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 사장님이 될 뻔도 하셨네요?

일동 : 웃음.

정상조 : 고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셨나요?

송상현 :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아버님이 세상물정을 알아야 하니 네가 사업을 해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운수업이 현금 장사라는 걸 알고 시작했으나 알고 보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밀지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름밥을 먹는 어려운 사람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까지 그 당시 운전기사나 차장하던 이들과 연락이 계속되면서 서로 돕고 그랬지요. 집을 지을 때는 소위 노가다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인생경험을 했지요.

김건식 : 지금 돌아해보면 그런 경험이란 것이 인생을 사는 데는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관점으로 보면, 특히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 아들에게 공부만 시키지 않고 상업적인 일도 시키셨던 것을 보면 아버님의 사고가 특이하셨네요.

송상현 :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독자인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살이 데모나 하고 놀다가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난 당시 고시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5.16때 군부가 주둔을 하다 보니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때 여름에 한 달 정도 절에 가서 생각했죠. 내가 대학 다닐 때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했다는 증거 내지 표시를 만들고 싶었는데, 나 혼자 뭐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해봤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 남들이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증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고시공부를 하기로 했지요. 3학년 이후 허무한 학창세월을 고시로 마음을 잡은 셈이지요.

정상조 : 그 뒤 사법대학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셨습니까?

송상현 : 아닙니다. 당시 유기천 교수님이 사법대학원을 만드신 초기인지라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대로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 원서강독 위주였고, 실무가들의 강의는 당시 99% 일본 판례만 가르치다보니 문체가 많았어요. 일본말을 배우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거의 일본법학을 가르치는가 하면 실무연습시간에도 학생이 작성해온 기소장이나 판결문의 구두점이나 토씨 가지고 트집을 잡는 실무가가 대부분이고, 교육도 두서없이 되고 해서, 시험만 보고 사법대학원을 거의 다니지도 않았어요.

김건식 :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흥미진진한 이야기군요.

조흥식 : 그런데 선생님 공백 기간을 스스로 공부하셨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댁에서 하셨나요?

송상현 : 동송동 법대도서관에서 했지요. 4시 30분부터 도서관에서.

조흥식 : 사법대학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송상현 : 사법대학원은 거의 안 다녔다니까요.

정상조 : 군복무를 하셨는데 복무하시다가 군 항명 사건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원통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말씀해주세요

송상현 : 사법대학원을 1년 반에 마치고 광주시 교외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 입소했는데 군기가 무척 엄했어요. 사병생활을 오래 하다가 준위를 하고자 준사관 시험을 합격하여 들어온 후보생과 함께 훈련을 받으니 훈련이 특별히 힘들었지요. 훈련이 어떠했다면 보통 완전군장하고 선착순 집합, 늦은 자는 연병장 다섯 바퀴 돌고 선착순 집합, 또는 12월 추운 날 완전군장한 채 구보해서 강물 속을 건너는 등 굉장히 심한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 추억으로 남았으나 참 힘들었죠. 처음에 후방에 배속되었다가 잠깐 경기도 6사단에서 근무하였고 나중에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 있는 사단으로 배치되었는데 거기가 그 당시 서울서 12시간 걸려야 갈 수 있는 하늘아래 첫 동네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 군법무관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법무참모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서기 업무를 한 일반 보병장교를 간단한 전형을 거쳐서 군법무관으로 임명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총각이 약방에서 매일 심부름했다고 약사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연명으로 그 법안에 반대하는 항의 서명을 만들어 국회에도 제출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 육군헌병들이 우리 동기생 전원을 조사하는 가운데 당시 군대에 같이 입대한 모모 동기생 두 명과 함께 내가 주모자로 몰리게 됐고 우리 동기 전원이 항의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항명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말도 안되는 짓을 해놓고 우리 동기생을 모두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다 웃기는 거지요.

조흥식 :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그러셨지요?

송상현 : 그때 우리는 아무도 구속된 일은 없고 전원이 징계를 받았지요. 동기생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공동행동을 했으니깐요. 나도 원통에서 서울에 나와 있다가 적극 가담하여 서명을 하게 됐는데 몇 번 문통을 주도한 때문인지 내가 주동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법대학원 3기생 62명 전원을 징계하거나 구속하면 법무관 부족사태는 더 악화할 것은 뻔하므로 조용히 넘어갈 것도 고려했던 모양인데, 당시의 모 육군법무감이 자신의 강한 자존심과 개인적 승진계획 등에 타격을 줄까보야 문제를 키운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그 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벼슬을 다하고 정부가 낙하산으로 어느 업계의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보냈는데 그 때 마침 내 처삼촌께서 그 협회의 회장이시어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 몇 사람은 대위로 승진했다가 중위로 강등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건은 결론이 났습니다.

조홍식 : 군복무는 3년 다하셨나요?

송상현 : 거의 다 복무했지요.

김건식 : 외국유학을 한 나라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셨는데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송상현 : 그 당시 외국유학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특히 법률 분야의 유학은 힘든 시기였는데요. 하루는 김기두 교수님을 뵈었는데 날더러 “자네 유학 안 갈래?” 하시면서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도 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만 잘 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유학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고 풀브라이트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았어요. 그 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한 번은 김교수님이 또 “서류 접수했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토필시험을 봤는데, 600점을 받았어요. 주위에 유학상담을 할 분이 아무도 없어서 풀브라이트 관련 직원에게 물어 보았는데, 법학분야라 그런지 잘 모르더라고요. 면접에서 대학의 선택에 관하여 물을 때에는 “나는 한국이 대륙법국가 아니냐. 그러므로 미국에 가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을 모두 배울 수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가 “독어를 했지만 불어도 잘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불어를 쓰고 프랑스법을 배우고 싶으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틀레인 대학」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가보니 불어는 전혀 쓰지 않았죠. 완전히 속은 것이죠(일동 : 웃음). 그 후 우리 아버님이 “한 나라에서만 공부하게 되면 그 나라의 앞잡이가 되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아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두루 배워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경성방직주식회사의 오사카 지점장으로 계셔서 일본 사정을 잘 아셔서 그랬는지 일본만은 반대하셨어

요. 그래서 미국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로 가게 됐지요.

조흥식 : 그 당시로서는 고시 양과 합격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한 경우인데, 유학 가시게 된 이유가, 합격 이후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기득권을 버리시고 유학을 가시게 된 배경이, 학문을 선택하게 된 것, 교수의 인생을 선택하게 된 것, 이런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요?

송상현 : 꼭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고 어떤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21살인데 아직 어린 나이에 그런 미래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했었지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난리였죠. 동기들은 군수나 경찰서장에 임명되었는데 나는 안나갔단 말이지요. 그 당시 즉각 군수로 발령받아 나갈 수도 있었지만 대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군수보다 어학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조흥식 : 그런데 그 당시는 어학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는데요?

송상현 : 아무도 전연 어학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였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공장이 UNCRA의 원조를 조금 받은 관계로 감독관인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Robert Donaldson이 있었습니다. 그 분과 고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서구 사회에 대해 눈을 뜨게 됐지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서 조신히 호텔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희한한 음식도 먹어보고 어학을 잘하고 싶은 욕심에 한때 어학자의 꿈도 생각했었어요.

조흥식 : 비전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송상현 : 적극적인 것은 없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어려서 그랬는지 저의 나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건식 : 유학 중에 인상 깊었던 일이 많으셨겠지요.

송상현 : 물론 미국에 촌놈이 처음 가서 온갖 실수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그 당시에도 미국대법원의 흑백통합명령을 거부하는 풍조가 완전했는데 흑인도 백인도 아닌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참 고민스러웠지요. 버스에 타거나 공공장소 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물론 표지판은 떼어버린 뒤였지만 흑인 전용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백인전용문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그곳에서 동양 사람을 거의 처음 보니까 신기해서 그랬는지 모두들 잘 대해주었고 백인들은 자기네가 흑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몽매한 노예의 후손이라는 점 때문인데 동양인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같이 상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파리에서는 1968년 5월 혁명이 났을 때 정말 대단했죠. 죽을 뻔했어요. 당시에는 프랑스 친구들에게 1960년 한국에서도 겪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여유를 부리기는 하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최루탄이 하숙집 방에 날라들어 터지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총파업(general strike)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도시 전체가 파업을 하여 전기, 전화, 지하철, 전보, 신문, 교통, 우편배달, 식료품 배달, 버스, 주유소, 모든 것이 총스톱(stop)이 된 상태가 되니 외국인인 나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루 이상을 걸어서 프랑스국경을 넘어서 벨기에에 도달했지요.

김건식 : 대단하시네요.

송상현 : 그래서 겨우 겨우 거기서 영국으로 넘어갔지요. 지금은 아주 개선되었지만 그 당시 영국 음식이란 참으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감자, 당근, 완두콩, 캐비지, 싹눈 양배추(Brussels sprouts) 등 다섯 가지 채소를 푹푹 삶아서 고기 한 점과 함께 소금과 버터를 찍어 먹었어요. 영국에 와보니 미국과 같은 신천지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소 순박하고 격식이 없이 소탈하게 대하는데 비하여 영국인과 같이 오랜 전통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달라졌고 자기네 문화의 우월성을 토대로 따지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꼈지요. 인종문제만 해도 영국에서는 유럽기원의 백인과 그 나머지 사람과의 차별이므로 우리는 비백인이므로 꿈쩍없이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지요.

김건식 : 결국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실 수가 없었던 거군요?

송상현 : 그랬지요. 당시에 김유후 변호사, 김동희 교수도 파리에 계셨지요.

정상조 : 그럼 그 총파업으로 인해서 프랑스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힘들었나요?

송상현 : 그건 아니죠. 파리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시골에서 밥도 주고 인심도 좋았다는데,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김건식 : 전공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틀레인 대학에서의 석사도, 코넬 대학에서의 박사도 모두 해상법으로 하셨는데 그 분야를 선택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송상현 : 장인어른의 권유도 크지만, 특히 코넬 대학에 갔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법 교수로서 80이 넘는 구스타브 로빈슨(Gustav Robinson)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요. 또, 월 스트리트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 로펌에서는 당시 미국에서 해상법 실무가로서 최고봉인 와튼 푸어(Wharton Poor)라는 변호사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 분도 80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셔서 꼭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시곤 했어요. 대단한 분이셨지요. 그 두 분의 대가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나에게 우연하고도 엄청난 행운이었지요.

김건식 : 선생님 로펌생활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이야기 하나 정도 해 주세요.

송상현 : 해상운송실무는 역동적입니다. 배를 압류하러 보스를 모시고 로펌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의 홈 포트(home port: 본거항)에 가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어레스트 워런트(arrest warrant) 받아 신속하게 압류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멋지지요.

조흥식 :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네요.

송상현 : 그럼요. 그런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과는 맛이 다르죠.

김건식 : 그런 도중에 서울대로 오신 것인데 왜 좋은 경험을 마다하고 학교로 오시게 됐는지요?

송상현 :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속에서는 한국에는 로펌이 없으니 이런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로펌의 운영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고 묻고 필요한 서류나 양식 등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귀국을 하자마자 영어를 하는 법률가가 귀해서 그랬는지 미국 대사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더러 나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뭘 하면 좋을지는 결정을 지은 것이 없길래 우선 법대 은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교수는 어떨까요?” 하고 여쭙어 보았지요. 단 한분도 교수를 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희철 교수님 한 분이 “글쎄 본인 하기 나름이고 송 박사같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은 교수를 해도 괜찮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한테 갔지요. 장인이 웃으며 “판검사를 하기보다 교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너에게 의미가 있는 선택이겠다” 하시면서, “젊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일 것이다. 그 의미는 네가 찾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채 제도가 없는 당시 교수를 하기로 하고 지원서를 서울법대에 제출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통보를 받았어요. 그 후 한심석 총장님한테 불려갔지요. 그 분은 우리 아버님 및 장인어른과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 분 말씀이 “내가 너를 법대 교수로 밀어넣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말이 많은 교수사회에서 누구의 덕으로 교수가 됐다고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기회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1년을 쉬었어요. 특히 배재식 교수님은 “교수가 되려면 쉬는 동안에도 예컨대 변호사 개업 등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1년 내내 놀았어요. 그러다가 서돈각 법대학장님이 동국대 총장으로 가시고 그 자리에 김중환 교수님이 학장이 되셨는데 그 분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시어 교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가르칠 과목이 문제가 되었어요. 상법으로 채용된 것 같은데 학장께서 상법은 물론 민사소송법도 가르치라고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김중환 학장님은 내가 고시 행정과에 합격했을 때 행정대학원장으로서 나의 고시점수를 알려주셨고, 사법과에 합격했을 때 또 그 점수를 알려주신 분이지요. 당시에는 고시 사법과의 시험과목이 이상하게도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드물게 이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합격했는데 김중환 학장님은 내 점수를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이를 아시고는 상법 외에 민사소송법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지요. 비록 나를 상법 선생으로 임명을 했지만 민사소송법을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해서 학장님으로서는 많이 고민하시다가 내가 학교에 첫 출근하기도 전에 상법 및 민사소송법 둘 다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법 5과목(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및 해상법)과 민사소송법 2과목(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도합 7과목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친 경우는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이랑 자주 술자리를 했는데 그때 나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채용을 거부한 일화 및 유례없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희귀한 예 등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하셨다고 하더군요.

조흥식 : 선생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그 때까지 이루었던 업적과 성과를 남기시고 유학을 떠나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게 된 배경이랄까, 마음상태랄까,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 : 당시에는 나라가 가난하고 혼란스러워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갈 수 있는 진로가 정부쪽으로 가는 좁은 문 밖에 없었지만 우리 집안분위기는 관을 무조건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막연하기는 하나 그래도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무너독남인 나를 막상 머나먼 외국에 유학보내신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대단한 분들이시지요. 그리고 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배우는 동안 일본법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계와 실무계의 현상을 몹시 한탄했지요.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일본법학에 중독이 되었으면 입법이건 사법부의 법령해석이건, 학자들의 학설이건 100% 일본에 의존하는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나 법령을 베껴올 것인지 경쟁상태에 있었고 나는 이를 속으로 지독히도 경멸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은사들께서는 일본인이 해방 후 자기나라로 돌아가면서 남겨 놓은 갑작스러운 학문적 공백을 잘 메우고 나아가 세대 간 계승을 해 주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내신 분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인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늘 계속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은사들이 의존해서 가르쳐온 일본법학

을 잘 들여다보면 그 원전이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서구의 것이므로 내가 서구의 어학을 잘 하면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법학을 습득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본 고장에 가서 부딪히고 배우고 분석해서 우리 토양에 맞게 잘 변형 시킨다거나 응용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중간목표로 일본과 동등한 학문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일본을 통해서 서구 법학을 계수하는 한 우리는 항상 일본보다 뒤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나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나의 학문적 좌표와 나의 제너레이션의 임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갔습니다.

김건식 : 서울법대로 합류하셔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가르치시고 나중에는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법과 관련해서는 1973년도에 「법학」지에 쓰신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론”이 당시 아직 학계에도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사법상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신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논문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었나요?

송상현 : 상법전이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중 회사법은 참 중요하죠. 미국에서 회사법을 Harry G. Henn 교수님에게서 배웠는데 이분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 가르치셔서 회사법에 흥미를 가졌지요. 회사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서로 함께 진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당시의 경제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상법은 몹시 낙후되어있고 미국회사법이 굉장히 앞서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적인 회사법이 언젠가 필요할 텐데 이 법속에 담겨진 중요한 원리원칙 중에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회사법현실에 가장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회사법의 영리법적, 단체법적 측면에서 보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회사의 기관, 이사와 이사회 등이 정직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 첫째라는 생각이 들어 그 글을 쓰게 됐고, 지금도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김건식 : 또 한 가지 당시는 개념조차 제대로 소개가 안 된 시기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회사기회의 횡탈”이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새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송상현 : 그렇죠,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로펌에 있을 때도 해상법 실무만 했던 건 아니고 회사법 실무도 적잖이 했기 때문에 회사기회의 횡탈(가로채기)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운 외에 실무에서도 논의해본 개념이었죠. 아무튼 뭔가 다소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교단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정법조문이 있으므로 그것을 떠나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인데 회사기회의 횡탈과 같은 개념은 상법전에 연결시켜서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또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고 내가 배워온 선진 회사법을 가르쳐도 이것이 고시준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학생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한동안 고민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티칭(teaching)의 대상이 되는 것과 리서치(research)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법 분야에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티쳐(teacher)로서의 역할과 리서처(researcher)로서의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정상조 : 선생님께서는 1982년 미첼 폴린스키(Mitchell Polinsky)의 「법경제학입문」을 번역을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셨는데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책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죠.

송상현 : 우선 그 책을 읽고 법학에도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정상조 선생도 우수한 학자예요(일동 : 웃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법대에서 형법시간에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배우는데, 이것이 결국 인간이 지식을 파악하는 인문 현상이라는 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냐, 결과를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이분법으로서 세월이 가면서 교대하는 것이구나. 이게 마치 패션디자인에서 유행이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구나. 또 철학에서도 율곡, 퇴계선생들이 이기일원론과 이원론이라는 논쟁을 하신 일이 있듯이 모든 학문적 현상이란 상대적으로 대립된 관점이 서로 교대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침 Lawrence Friedman 교수가 오셨을 때 재미있는 책을 권해 달라고 하니, 폴린스키 교수의 책을 소개해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법경제학」에 접하게 된 계기이고 저도 상당한 학문적 충격을 받았어

요. 그 후 나는 법경제학에 대한 후속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도 억지로 계량화하는 면이 있고, 둘째 이것이 극도의 객관주의지만 언제인가 주관주의에 의하여 대치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법심리학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법경제학이 당분간 젊은 신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잘 자리를 잡겠구나 하는 기대는 있고요. 하버드 법과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 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법경제학에 경도되어 있어서 토론도 많이 하였지만 결국 당분간 「법경제학」이 법학 각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조홍식 : 사실 1972년 3월 논문(법학 제13권 1호)에 보면 「컴퓨터 기술 활용이 법학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내셨듯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컴퓨터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는데요.

송상현 : 그렇죠. 그 당시에는 8비트짜리 X급 컴퓨터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미국의 로펌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새로운 분야를 법학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죠. 조홍식 교수께서 나를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라고 하신 표현은 과찬의 말씀입니다만 정상조 선생이 얘기한 대로 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학문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법경제학 이외에도 지적재산권법, 국제거래법, ADR, 법과 사회, 법과 컴퓨터 등이 그렇고, 해상법이나 회사정리법, 상사중재, 법률구조 등의 분야는 잠자고 있던 분야를 새로 일깨워 가르치면서 활성화하였지요.

호문혁 : 처음 학교에 부임하셨을 때, 민사소송법 교수님으로 오셔서 제가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후회하지 마”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학시절에는 소송법을 전공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책이나 논문을 보면 항상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맥을 짚으시고 다른 사람의 오류를 틀림없이 잡아내시곤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상현 : 각자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절차법적 지식이 밑바탕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그 전공이 살아요. 나는 미국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 로펌에서 일할 때에는 연방법원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변호사나 사무실의 소송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가면서 얻은 결론이 실제법 분야를 가르쳐도 권리실현과 관련해서 소송법지식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법학자라도 역시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절차법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후 자기 전공분야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절차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과정이거든요. 미시적으로 해부를 하면서 정태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항상 전체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의 위치 및 비중을 알아야 틀림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절차법을 공부해서 이를 테면 절차적 정의(procedural fairness)의 관점을 자신의 의식구조 속에 주입시켜 놓으면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도 기본자세를 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절차법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호문혁 :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은 티칭하고 리서치가 갈라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하고 싶은 소송법 중에서 이 부분을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다른 분야의 글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실제 정말 하시고 싶어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셨는지요?

송상현 : 다들 어느 정도 그렇지요. 나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마 소송구조와 ADR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가 제가 좋아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이나 법인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절차법의 고유영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구분지어 다룰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증거법도 그렇고 양 절차법이 공통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 절차법에 모두 필요한 공통 그라운드를 만드는 일방, 서로 비교대조하여 각 절차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보편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손도 못 대고 말았네요. 다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할 때에는 절차법에 관한 평소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건식 : 1977년도인가 대학원에서 선생님이 「회사정리법」을 강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원 수업은 주로 학생 발표로 진행되었습시다만 선생님께서

는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고답적인 이론강의가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회사정리법」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습니다만 강의내용의 밀도로 미루어 오랜 세월 연구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회사정리법」이 비교적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그 분야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상현 : 그 분야는 미국에서 한 강좌를 들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해운업이 경제적으로 안 좋다보니 파산하는 업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배우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간혹 외국인의 계약서를 검토해줄 때에도 그들이 꼭 파산에 관한 조항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파산이나 회사정리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려고 했더니 교수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학부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대학원에서나마 내가 아는 분야는 전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기업도산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이분야가 전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난리가 나니까 비로소 나를 잡아다가 「기업정리관련법 특별위원장」을 시키기에 파산법,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 등을 만들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었죠. 김재형 교수, 오수근 교수, 박해성 판사 등과 함께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죠. 기업도산에 관한 분야도 우리나라에 내가 처음 도입한 것이지만 글 한 줄도 변변히 못쓰고 그렇게 끝을 맺어서 많이 유감이지요.

정상조 : 지적재산권법에도 선구적인 연구를 하셨는데 1986년도에 지적재산권법의 기본분야라는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및 저작권법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저작권법의 개정도 하시고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시죠. 그때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이후 20년 동안은 보호·강화가 주된 논제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퀵컴사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시장을 왜곡·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랄까 지적재산권의 경쟁 제한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데 큰 고민입니다. 방법론이랄까요,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송상현 :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독점금지위반의 문제는 항상 짝지어서 연구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널리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지요. 경제학적 지식과 헌법지식이 특히 많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월적 지위의 남용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거든요. 예를 들면 요사이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의 「끼워 팔기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유럽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장을 실제로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률만 공부해서는 좀 힘듭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회사법을 가르쳐주신 Harry G. Henn 교수님으로부터 저작권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저작권법 같은 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위반이 한미통상마찰의 주된 원인이 되자 지적소유권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개념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역이란 상품교역이 중심인데 왜 지적소유권문제가 통상마찰의 핵심 문제가 되는가 하는 점을 학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급한 나머지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불러낸 것 같은데 정부를 도와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할 때 참 바쁘게 돌아갔어요. 용어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를 도우면서 느낀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지적재산권 위반문제를 따지러 온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의 출판협회나 저작권협회 관계자들에게 내가 도리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해주면 이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를 내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졌지요. 그 결과 정상조 교수 같은 분이 영국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러 갈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한국지적소유권학회를 만들어서 연구 및 계몽활동을 하면서 선진국의 관련단체들과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았지요. 한국지적소유권학회를 중심으로 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이 학회를 정부가 만들어 지원하는 단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학회는 내가 주동적으로 창립하여 정부로부터 일천 한 푼 받은 일없이 활동했는데도 말이죠. 지금이야 격세지감이 있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 셈이지요.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재산이 대량 창출되고 있으나 이것이 너무 침해에 취약하므로 디지털재산과 관련된 산업의 보호, 육성 및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를 창립한 바 있지요. 특히 이상정 교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분야의 발전

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김건식 : 선생님께서는 실무계 경험도 있으셨지만 학계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도 실무 동향의 맥을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이상적인 협력방안, 상호보완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상현 : 그것은 학계가 리드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법학계라고 하면 서울법대가 선두이니까 우리가 그걸 리드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서울법대 교수진에는 외국에서 유학한 분도 많고 실무가 자격이 있는 사람도 많으므로 서울법대 교수진의 역량이나 수준을 고려하면 학계와 실무계를 아울러 리드하는 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등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하는 사람들은 당장 급하니까 어느 한 점만 보지만 학자들이 전체적 흐름을 짚어 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내 생각으로는 너무 자기 한 분야에만 완전히 철옹성을 쌓고 사수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법학 각 분야가 내부에서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런 점들이 타파가 되어서 학문적 협동이 잘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술술 풀린다고 봅니다.

김건식 : 선생님께서는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유학에서 귀국하신 직후에는 「법과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현 : law & society 혹은 law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법학 분야에서의 하나의 연구방법론 내지는 풍조이었습니다. 「법이 경제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법이 정치적 민주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법이 적극적으로 기여했는가, 오히려 방해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방법인데요. 나도 그쪽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법학내부에서 서로 분야간 협력은 물론 인접인문사회과학과의 학문적 협동(interdisciplinary study)에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문자해석에 골몰하는 해석법학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즉 law & society 접근방법이 그런 목적에 맞는 학풍이고 연구방법론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것도 내가 먼저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비슷한 단체가 있었는데 당시의 명망가들의 소모임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대표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당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내가 강구진 교수한테 물려줬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 모든 흔적이 없어지게 됐지요. 강 선생님은 훌륭한 분인데 너무 단명하셨죠.

호문혁 : 선생님께서 학회활동을 장기간 하시면서 민사판례연구회 창립멤버이기도 하신데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셨는데 창립당시의 이야기라든지, 회장을 하셨을 때의 후학들이 기억해줄 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송상현 : 판례연구는 성문법국가의 법학연구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공부방법인데 우리는 일본의 전통에서 배운 것이지요, 저는 순전히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일을 했지요. 그 당시에는 법학 분야별로 중심학회가 하나씩 밖에 없었는데 대개 회장은 서울 법대 선생님이 하는 거고 한번 하시면 장기집권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판례연구가 법률연구자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힘들게 창립을 했죠. 시작은 괄목직 교수님을 포함하여 교수와 실무가 열댓 명이 했는데 실무 쪽에서는 박영식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등과 같이 일을 했지만 애로가 많았어요. 우선 월례발표회 장소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폴브라이트재단의 회의실을 빌려서 하다가 쫓겨났고, 당시에는 일반인은 출입도 못하는 국립의료원내 스칸디나비아 클럽을 간신히 뚫어서 회의장소로 사용했었죠. 그래도 궤 선생님이 성품이 깨끗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어서 간사들이 궤 회장을 많이 따랐지요. 학자가 여러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은 전형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민사판례연구가 우리 법학계 및 법조실무계의 발전에 미친 공로는 대단한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풍토에서 민사판례연구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하죠. 제가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14년간 회장을 하는 동안 첫째 저보다 훌륭하신 다른 교수님들도 계신데 제가 회장을 했다는 게 죄송하고, 둘째 월례회의 발표논문을 묶어 매년 차질없이 “민사판례연구”를 출간하기는 했는데, 궤 선생님이 늘 소원하시던 바와 같이 일본의 「민상법 잡지」 같은 수준의 잡지를 시작하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하다가 제대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김건식 : 선생님께서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작업에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특히 느끼신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현 : 우선 대법원의 「송무제도개선위원회」에서 4 반세기 동안 위원을 했는데 송무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송무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집니다. 대법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많은 법안을 심의할 기회가 있었지요. 법률안 제안권은 정부에 있으므로 기본법, 즉 상법이나 소송법, 기업정리관계법 른 등 중요법률들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위촉으로 깊이 관여를 했고요. 또한 지적재산권관계 법률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법률초안을 만들거나 검토한 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첫 번째이고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상사중재법」의 개정, 「상사중재규칙」의 제정에도 관여했지요. 저작권법은 1984년에 개정작업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 강구진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내 아버님께서 쓰러지시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였지만 「저작권법」의 근대화를 추구하여 아마 3분의 1은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붓대를 잡고 초안을 만들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호문혁 : 선생님께서 서울법대로 들어오시게 된 과정을 얘기해주셨는데 객관적인 상황이 그 때 어떠하였나요?

송상현 : 교수의 수가 항상 20명 정도였는데 다들 학문적으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였어요. 선생님들이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특이한 습관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동태찌개에 카바이트로 발효시킨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지냈는데 좋은 추억이었죠. 그 당시에는 몇몇 선생님들의 개인적 업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이어가는 시기였는데 한분의 노력이 법대의 명성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길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협조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내가 더 잘했을 것입니다(일동 : 웃음).

호문혁 : 선생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는데 항상 학교가 시달려오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선도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민주화과정

에서 선생님도 같이 교감을 하셨는데 법대에서의 생활이 어떠하셨는지요?

송상현 : 법대는 전체적으로 희생을 많이 치른 대학이죠. 우선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이 징계파면의 형식으로 떠나셨고 법대가 반정부 데모의 온상처럼 인식되어 300명 정원이 160명으로 줄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희생이 컸었습니다. 그 때는 내가 교수가 되기 전이고요. 1972년 내가 교수가 됐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말도 안되는 10월 유신이 선포됐죠. 학교는 군인이 주둔하고 교수는 세면 도구를 챙겨 가진 채 학장실에 모여 24시간 비상 대기를 하며 세월을 보냈었죠. 학생들은 그 삼엄한 분위기에서도 데모를 주도하고 정부는 교수들로 하여금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TV나 라디오에 출연하고 신문에 글을 쓰게 강요했었는데 그것을 빠져 나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서 특히 김철수 교수님은 군부독재에 시달리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학생들은 헌법, 형법, 노동법 등 공법 쪽으로는 공부를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5분 내에 다 소문이 나서 서로를 의심하는 시기였지요. 즉 워낙 중앙정보부 기관원들이 많이 대학에 드나들던 시기여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분위기는 참 험악했어요. 강의도 제대로 못하고 법대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김건식 : 그 당시 환경은 암울했지만 사제 간의 정을 쌓는 데는 오히려 활발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그때 제자들과의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제자들과의 인격적인 교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송상현 : 그 당시에는 지도반이란 것이 있었는데 사실 「데모방지 감시반」이었습시다. 그 지도반 학생이 조금이라도 사고를 치면 지도교수와 연대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의 집을 가정방문하여 그 부모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 부모님이 삶은 계란 두 개에 맥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 대접을 하시면 미안하기 짝이 없었고, 자식이 데모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부모님의 지장을 찍는데 어느 학생의 부모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지문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지도반 학생들의 개인사정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죠. 나는 데모방지용이지만 지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제간의 정을 나누어야 졸업 후에도 간직할 추억이 있을 것 아니냐” 하면

서 맘을 탁 터놓고 활동비로 주는 경비에 내 돈을 보태어 학생들과 밥도 먹고 야유회도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을 가지려고 했어요. 한번은 내 지도반에 속하는 학생이 스크림을 짜고 데모를 선도하다가 경찰에 쫓겨서 내 연구실로 도망해 들어왔던 일이 있었어요. 이 학생을 연구실의 철제 캐비닛 속에 숨겨놓고 뒤쫓아온 경관에게 그 학생은 창문을 통해 딴 곳으로 도망했다고 시치미를 떼어 아슬아슬 구해준 일도 있었어요. 만일 그가 붙들렸으면 그는 구속과 퇴학이고 공무원인 그 아버지는 꿈쩍없이 해직이지요. 내 지도반 이외에도 그 당시 체대하고 복학한 노장학생들의 모임인 「녹우회」가 있었는데 이 모임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모임의 지도교수를 하면서 늙은 학생들과 잘 어울렸고 내가 또 그런 모임을 좋아했어요. 내가 젊어 보이니까 장가를 안 간 줄 알고 자기 누나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동아리도 지도교수가 없으면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기독교신자라고 하면서 지도교수를 안해 주어서 내가 결국 법불회의 지도교수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강금실 학생이 열심히 불교경전에 관한 공부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군요.

조흥식 : 선생님 주례, 추천서도 많이 쓰셨는데요. 주례는 몇 쌍 정도 서셨어요?

송상현 : 한 450쌍 정도 썼지요. 대개 자녀들 출산하고 잘들 사는 것 같아요.

조흥식 : 추천서는 더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송상현 : 글썄 한사람이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해에 500통을 쓴 적이 있지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기여서 그것을 일일이 IBM 타자기로 쳐야 하는데 일을 대신해준 여비서가 곱게 다듬은 손톱이 다 부러져서 사표내고 그만 두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추천서는 본인을 평소에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고용주 또는 은사나 동료가 일정한 요령으로 필요한 요점을 언급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친하다고 찾아와서 본 일도 없는 자기 자녀의 추천서를 써내라고 조르면 참으로 난감하지요.

조흥식 : 선생님 학생 구제를 해주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송상현 : 1980년대 중반 경까지 사법시험의 2차 합격자가 발표되면 3차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를 각 대학교에서 작성해서 미리 고시과에 보내야 했습니다. 2차에 합격한 학생의 지도교수가 그 학생의 면접자료에 이 학생은 국가관이 뚜렷해서 법조계로 진출하더라도 사고를 안낼 학생인지를 평가해서 의견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이상하게도 법대에서 재학 중에 고시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내 지도반이었어요. 지도교수가 작성한 의견 외에 안기부에서 보낸 기록을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데모기록이 있으면 면접시험을 잘못 본 것으로 위장하여 무조건 낙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해에 내 지도반 학생 몇 명을 포함하여 2차 합격자 25명 정도가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해당학생들도 나름대로 스스로 구제운동을 하고 나같이 무력해 보이는 지도교수에게는 전연 상의도 안하더니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막판에 내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나는 당시 권력기관인 안기부, 법무부, 고시를 주관한 총무처, 민정당, 청와대 등 온갖 정부기관을 하루에 세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데 다들 피하려고만 했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지요. 간신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처음으로 면회하면서 내가 말했지요. “내가 내 자식의 일이라면 부탁도 안했을 꺼다. 이렇게 응졸한 정책을 고집하여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 배제한다면 이는 큰 부담으로 쌓여서 마침내 이 정권의 안위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의외로 통크게 시원시원한 어조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침 일찍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이 “선생님이 일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문제는 문제의 2차합격자들이 빠짐없이 와서 면접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주임과 함께 부랴부랴 연락했지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가 구제를 받아서 다 붙었고 그 이후 면접에서 낙방시키는 제도는 아주 폐지됐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어떻게 갑자기 합격했는지 한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정상조 : 선생님, 로스쿨 원산지인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로서 로스쿨에 대해 고민하셨는데, 로스쿨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건식 : 그에 곁들여 미국 로스쿨에서의 강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현 : 외국의 로스쿨에서 한국법을 강의하는 일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네요. 왜냐 하면 미국의 일류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한국에서는 더 편하게 인정받고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겠지요. 거기다가 자료의 부족을 무릅쓰고 강의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또 영어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려면 더욱 힘들죠. 한국법의 세계화는 꼭 필요한데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1970년대에는 원래 미국측 로스쿨 교수들과 협의한 결과 컬럼비아 로스쿨에 한국법 석좌교수 자리를 만들어 내가 취임을 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서 추진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았고, 다음에는 하버드 대학에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불을 기부하게 주선했는데 결국 석좌교수자리를 창설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설사 이를 만들어도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강의만 하고 온 것이 아니고 학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 진전이 안되었어요.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일을 하는데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크지만 누가 나서서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제가 관련된 영문저서를 출간했지만 구매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정상조 : 다시 로스쿨얘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하여주세요.

송상현 : 늘 하던 얘기이지만 고시를 통한 법조인양성 시스템을 수십년간 계속하다 보니 부작용이 너무 많으므로 이것을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대전제가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법학교수님들이 수준높은 법학교육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문제지요. 세계에서 미국만큼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가 없고 로스쿨도 그러한 교육투자의 산물인데 이를 그대로 따라 가려고 하면 힘들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일정한 수준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잘 해야 됩니다.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간판을 바꾸어 달 경우 그 다음날부터 교수님들이 지난 수년간 강의한 내용을 버리고

새롭게 준비된 수준높은 강의를 시작하실 수 있는지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전과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는 교수님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많이 반성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로스쿨이 성공한다고 봐요. 그러므로 정부의 투자와 선생님들의 자각을 통한 노력이 전제된다면 당장이라도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좋고 저도 나서서 앞장서겠어요.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죠.

조홍식 : 선생님 연보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참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시고 그 빛나는 업적을 이루는 여러 가지 활동, 국제적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선생님의 실천적 활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학교 행정과 국제적인 활동, 즉 ICC 재판관의 활동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봉사 활동, 사회봉사활동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학문 활동하고, 실천 활동이 나름대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과 절연된 학문적 활동이란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문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원칙으로 삼으신 점이랄까 경계한 점이랄까, 행동거지의 준칙으로 삼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송상현 : 학회활동이나 실무참여는 그것이 학문 본연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항상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종된 것인지 잘 분간하면서 활동해야지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얻는 지식과 기회를 어떻게 하면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도움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늘 생각하는 거지요. 다소 거북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선·후배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만 파이의 분배를 둘러싸고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일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다른 동료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곤 했어요. 법학계에서 내가 학회장의 단임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저는 학회활동이나 기타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충돌한 적이 없지요. 특정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후배들이 잘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현재는 저희들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 관리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요. 또한 교수가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재벌회사의 사외이사 같은 것도 거절했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교수의 긍지와 품위를 지키는 노력이 좀 더 요망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조흥식 : 선생님, 학장으로서 공직을 하셨고, 또 총장선거에도 출마하셨는데, 학교행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송상현 : 나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에 잠시 학교에 출장을 하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40년 전 내가 학생 때나 지금이나 학교행정이 변한 것이 하나 없이 똑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반성도 했어요. 서울대의 행정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하여 유연하게 개선될 여지는 아주 많지요.

조흥식 :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송상현 : 지금은 특히 학내 교수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좀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과거부터 의사결정과정이 회의록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그러함에도 사실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원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나치게 선·후배 간에 규율이 엄격해서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학장 할 때에는 언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었고, 제가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과 동창회의 협조로 100주년 기념관을 완공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조흥식 : 사회 참여의 정도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지요?

송상현 : 물론 교수라는 직책의 기본 모습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교를 지키고 사회봉사도 하는 것이지만, 대신 사교성을 발휘하여 섭외활동도 하면서 학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수도 우리가 포용해야 합니다. 또 행정능력이 있어서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을 잘 다루는 교수도 필요하고

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수의 사회참여가 어느 정도 필요는 해요. 또 자기의 전문지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붙잡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연구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에 피해를 주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런데 저의 경우 특별히 현실 참여나 공공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손을 뻗힌 적은 없고 내게 요청이 와서 전공지식을 토대로 도와드린 것이 대부분이지요. 내 전공에 안맞거나 교육과 연구시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적당한 후배나 동료에게 넘겨드렸지요.

조홍식 : 선생님, 자선활동에 관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 :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등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 살면서 남한테 베푸는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는 과거부터 적십자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애당초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은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인데 이 중에서 전통적 효사상과도 맞으니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국회에 나가려고 노인유권자 모집하는 거냐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있길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쪽을 살펴보았죠. 처음에 유니세프(UNICEF)에 관여했더니 주위에서 왜 국내에도 불우한 어린이가 많은데 돈을 건어다가 외국 어린이들에게 퍼주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어린이를 보니까 아픈 어린이와 굶는 어린이의 두 부류로 취급하더군요. 후자인 결식아동의 경우는 감정적으로 즉각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픈 어린이는 전연 사정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어린이의 경우, 심장병과 소아암을 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장병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역대 영부인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 재벌회장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기부를 했어요. 후에 영부인이 손을 뗀 뒤에는 풍부한 기금으로 심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아암 쪽은 아무 관심도 지원도 없어서 내가 그쪽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미력이나마 국내의 아픈 어린이와 외국의 불우한 어린이에게 모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소아암이란 것이 걸리면 한 3년간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병수발을 해야 하니까 가정이 거의 망가지는 상황이 되지요. 어린이들은 항암치료 등 치료에 고생하고 그 부모님들

은 항상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시달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대병원 등 전국의 여러 대도시의 대학병원 앞에 「한사랑 쉼터」라는 것을 열어서 부모와 아이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소아과 안효섭, 신희영 교수님의 지극하신 보살핌,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헌신적인 사회복지사들이 근근 운영해갑니다. 원래 나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일찍이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집 차고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우연히 소문을 들은 에스콰이어그룹의 고 이인표회장이 우리 차고도서관을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내외적으로 20여 개의 어린이도서관을 지어 기증하셨고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볼 때 가장 인권유린을 당하는 계층은 어린이와 부녀자입니다. 취약한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창립에 참여하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분야의 지원 이외에는 아름다운재단이나 사단법인 정해복지 등에 이름을 걸고 있으나 제가 해외에 주로 체재하고 있다는 구실로 저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나서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건식 : 마무리 겸해서 동료교수나 학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상현 : 우리학교가 세계적으로 우뚝 서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무궁한 발전을 하시기 바라는 말씀이외에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수의 길을 걸을 겁니다. 교수직이 어떤 면으로 보아도 가장 보람과 값어치가 있고 나 자신을 신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좋은 직업이니까요.

조흥식 : 선생님,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 : 저는 서울대학을 물러갑니다만 우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수년간 더 현역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곳에 눌러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일동 : 웃음). 이 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제가 상고심 재판장으로서 상고사건 4건을 심리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했습니다. 선고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그야말로 딱끈딱끈한 국제법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나 걱정되어 잠을 못잡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안 인류 모두의 평화와 정의 및 인권옹호에 기여할 저로서의 역할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계속 주어지면 지난 35년간 서울대학교의 등지에서 곱삭은 슬기와 경험을 토대로 나머지 생애를 학문적, 사회적, 공공적, 국제적 봉사에 더욱 헌신할까 생각합니다.